신안군의 설화

— 자료 조사 보고 —

- 차 례 -

1. 조사 개요
 1) 조사자:허 경 회
 2) 재보자
  ◦박영현(83세) ◦김병술(80세) ◦김영만(81세) ◦오명석(78세)
 3) 조사 일자:2001년 3월 20일~3월 25일
 4) 조사 대상 지역:압해면
 5) 조사자료:설화 1편
2. 설화 자료
 1) 도깨비 이야기(재보자:박영현)
 2) 도깨비 이야기(재보자:박영현)
 3) 당나무의 이야기(재보자:박영현
 4) 풍년 흉년, 징조 이야기(재보자:박영현)
 5) 당제이야기(재보자:박영현)
 6) 도깨비 이야기(재보자:김병술)
 7) 임금님의 유서(재보자:김병술)
 8) 묘자리 이야기(재보자:김병술)
 9) 묘자리 이야기(재보자:김병술)
 10) 지네에게 처녀를 바친 이야기(재보자:김병술)
 11) 도깨비 이야기(재보자:김영만)
 12) 저승에 다녀 온 이야기(재보자:김영만)
 13) 지네 이야기(재보자:오명석)
 14) 점쟁이(재보자:오명석)
 15) 점쟁이(재보자:오명석)
 16) 여자 입방아(재보자:오명석)
 17) 도깨비 불(재보자:오명석)

도깨비 이야기

◦조사 일자:2001년 3월 20일
◦제보자:박영현

우리 큰아버지가 목포에 갔다 오다 밤늦게 걸어서 호장목을 넘어 오는디 도째비가 압에서 막는거야.

도째비가 말하기를“나와 씨름해서 니가 이기면 살려 보내고 내가 이기면 죽인다고”하는 거야.

할 수 없이 큰 아버지가 도째비와 씨름을 하게 됐어.

저녁내 씨름하여 큰 아버지가 이겨

도째비를 큰 나무에 혁디로 묶어 놓고 집에 왔다가 날이 밝아 그곳에 가보니 묶여 있는 것은 도째비가 아니고 빗찌락 몽당이였다고해, 허참….

도깨비 이야기

◦조사 일자:2001년 3월 20일

◦제보자:박영현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하얀옷에다 까만 옷을 입고 수건을 몰아서 쓰고 바지는 딱 걷고 비가 와서 논둑을 보러 가는디 캄캄한디 도째비가 여러개나 나타난게야.

등불로 보면 없고, 캄캄하면 나타난거야.

그 때에 도째비가 하나면 어떻게 해결 하겠는디 여러개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소리만 질렀제. 그러닌까 도째비가 가면서 하는 말이 좀 놀려 주려 했는디 겁쟁이를 만났다고 하는거야.

당나무 이야기

◦조사 일자:2001년 3월 20일

◦제보자:박영현

옛날에 동욱이가 있었째. 그 사람이 뾰족나무 휘어지면 타고잡고 일본말로 다이생이 돌아다닌 것 타고 그걸로 잡고 참 좋았어. 아야 그것 밭에 아이들이 놀면 비비마고 그랬제. 비비했어, 비비가 그 전애 동티난다고 나무달고 독달고 도투난다고 그랬는디 동네 할멈이 갑자기 눈이 이상했네. 그 때 동욱이차 눈이 회복이 못했어.

— 형필이 조카 유형필이 조카가 단오나무 팽나무 우리들도 나는 어려서 지작있고 몸이 연해서 잘 못 올라댕겼지만 거의 보통 많이 올라댕겼네. 우리 클 때 동무들이 많아서. 어려서 많이 올라당기기는 했는디 평닥이나 했제. 으우에 올라가서 오줌도 매려울거 아닌가. 대변도 보고 싶고. 그란디 그런 장난을 하는 아들들은 없었어, 내여와서 소변하고 대변했제. 나도 모르게 엄격해서 나니 그렇게 놀았는디 아 이놈이 그 우에 올라가서 오줌을 눴어, 철부지가 오줌을 누제. 당주위에 오줌을 누지마라. 보통, 인자 주의를 하고 그라지만, 그랬는디, 지랄이란 병이 돌았는가봐. 간질. 그래서 죽었네.

— 아카시아 나무 양옆에다 아주 좋은 놈이 있었제.

풍년, 흉년 징조 이야기

◦조사 일자:2001년 3월 20일

◦제보자:박영현

옛날에는 달이 저 우게 가서 북쪽으로 많이 당그면은 가뭄이 들고, 남쪽으로 많이 당그면은 흔하게 오고, 가운데만치 있으면 비가 흔치 않고 좋다. 그래 가지고, 해, 달 지는 것

도, 해가 떠오르자, 달이 넘어가자, 그러믄 좋다 했고, 해가 만일 떠올라도 달이 있으면 흉년이 든닥해. 그런 전설이 있었어.

당제 이야기

◦조사 일자:2001년 3월 20일
◦제보자:박영현

당은 없고, 저그 뒷께 가서 거그에 당집이 옛날에 있긴 있는디. 거그서 당맞이를 해다가 당제를 지내제. (왜 지내게 됐습니까?)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제. 팽야 그 마을 평안을 위해서, (시기) 1월 정월 초하루. 오후 3시에. 제관은 없고, 이장이 주관하고, 각호에서 갹출해서 음식을 장만하제.

도깨비 이야기

◦조사 일자:2001년 3월 21일
◦제보자:김병술

옛날에 늙은 사람이 밭에다 거름을 할란디 뒤께 비닐 덮으러 집이를 간께 갈때는 없더니 올때는 크나큰 팽나무 앞에가 각시가 우두거나 앉았어. 각시가 이렇게 우드거니 이렇게 애기 뎃고 크나큰 팽나무 밑에서 앉겄드랑가. 그렇께 가민히 달아 볼랑께 푹석하드라 해라. 가만히 달아 볼랑께 손이 푹석 하제. 암시랑 안하고 그냥 간께 어찌나 무섭든가 비닐을 요랬다 요랬다 함시러 왔다여.

또 한 사람은 술을 허끈 먹고 지그 집을 찾아 온디 초분이 한나 있고 멧이 한나 있었는디. 우리 집을 가야 쓰겄다. 그리고 술을 허끈 먹고 집에 온디 둘이 술이 취해갖고 한나는 미리서 지그집을 가고 한나는 초분 곁에 앉아 멧엣다 두러눴는디 한나는 지그 집에 가고, 인자 한나는 거가 두러눴는디 지그 집을 간께는 불이 훤하게 써났드랑가, 지그 처가 산고가 들었드랑가. 산고가 들었는디 간께는 가시나였드랑가 그랑께, 도로 왔다게. 초분 곁에가 도로 온께 초분에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아무게네 집을 간께 아들 낳았데마는 아무게네 집에 간께 딸을 낳았데." 딸을 났는디. 전에는 변소보고 칫간이라 했어, 칫간에다 박을 숨거서 그 박아치 따서 몰래서 그 박아치로 물 떠서 지양밥을 하데. 그러서 안 먹고 가불었네. 이 오지게 좆할년 그리고, 그라고 온께는 그래서는 그리고 가드라고 한께 지그 집이가 딸을 낳았다여, 자기가 애기를 이런거 키믄 뭣하냐 그라고는 뭣으로 긁어분께 애기가 피가 났다여, 그놈이 숭이 졌든가, 그 사람이 늙어 감시러 소금 장수를 했다여, 소금장수가 여관에 가서 술을 먹고 잠을 찬디 여자가 인자 한나 있은께 그 여자랑 잘라고 배를 살살 본께 숭이 있다네. 그랑께다 지 안에서 타고 난께 그라제. 그 애기가 그리고 갔제. 아 옛날에 내가 젊어서 읊은 애기구나.

행간도 가이나가 인자 이르고 처녀가 됐는디 그 가이나가 인자 이르고 또깨비에 홀러서는 나가비렸는디 지그 큰아부이는 물에 가서 인자. 배나무 심고 이 선산 나무를 비어갖고 사간께 그곳 사람들이 사간께 그리 돈받으로 간다고 따라갔는디 그 배가 파산해 부러서 큰아베는 죽고. 지그 큰엄메는 살다가 죽었는디 지그 엄메가 작은 사람인께는 큰엄메 친 큰엄메여, 그란디 글고 인자 나가서 아무리 해도 일주일 동안을 못찾았어. 가이나를. 못찾고는 산이로 댕기므로 이르고 앉겼으믄 제 옷을 이러고 막 이런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거치고 댕개도 못찾고 입에다가 인자 탁 봉창해 나분께 뭐 그런 반벅을 해갖고 댕개도 허쳐도 그런것도 주서먹덜 못하고 그래서 일주일 한 번도 배고픈참이 없었다여. 그란디 극락에다 빠칠라믄 지그 큰멍메가 여그다 빠치믄 안된다 하고 물에다가 빠칠라 하믄 지그 큰아베이가 물바닥으로 막 끗고 댕개도 물에다 빠치믄 안된다고 막고 인자 그란디 니그 집이 지그 어메가 잔 간샀어. 이조 손끝이 간사서 누구 뭣도 주도 안허고 니검메는 지사 지내므는이라고 지사끼 차려놓고 오줌 누러 가므는 손도 안씻치고 와서 그리하드라. 그라고 인자 그 또개비들이 막 뭐이라 하고 가이나 보고, 인자 또 니검메는 먹을디 없이 대그빡만 띠서 거래를 하드라 그런 말도 하고, 이라고 인자 지그 그륵에 머댕긴 찹쌀이 댕겼네 근접쌀이 댕겼네 이런거 댕긴거까지 다 말을 하드라여 귀신들이. 그래서 하다하다 못해서 인자 파탈 해브렀어, 부모네는 인자 못찾은께. 일주일 그런 정도를 못찾은께 파탈을 햅렸는디. 끗고 댕기다 댕기다는 인자 그걸 끗고 댕길 때까지는 괜찬했는디 자기부이가 파탈을 하고 행랑방에 가 소킨디 여그서 인자 구시에서 물잔 담아 났는디 자기부지가 잠을 잔디 잠이 지피는 안 잤제 잠을 잔디 후적후적 하니 물 묵은 소리가 나. 소가 물을 묵나 그라고 나온께는 지그 딸이 거기서 인자막 구시에서 물을 묵은거이라. 일주일 동안을 물을 안묵었는께는 막 구시에서 뭣도 그래 묵고는 지기부지가 나간께 기냥 아조 쪽 펴져 불드라여, 그래서 인자 보둠어다가 그 큰애기를 키어도 또깨비 올믄 사람이 밍이 잘룹다해도 지금도 그저 살았어. 그저 지금 완도 읍에서 자식 낳고 그렇고 잘살고 지검메 지가부이는 진작 죽었는디 그저 살았어. 잘살어 지금. 그거 이 또개비 애기여.

도깨비가 질을 건너디 불이 방울때 기만하게 써져갖고 있은께 저놈을 어뜷고 내가 씨름을 해봐야 쓰까. 인자 사람이랑 또깨비가 불써갖고 서있은께. 볼수록 큰 덩이가 서서 어떻고 저놈을 내가 씨름을 해야쓰까. 에이 허리끈을 딱 끄럴갖고는 씨름을 해도

잘 안자빠지드라만 허리끈을 끌려서 그놈을 손안에다 챙챙 쟁에 나두고 씨름을 할라니까는 요놈도 안자빠지고. 아이고 그것도 안자빠지고, 아이고 이놈한테 못이기겄다 하고 집에 갔다 뒷날 아직에 본께 빗자락이드라 빗지락. 마당쓴 빗지락. 큰빗지락이 있어. 그거이 또깨비여.

임금님의 유서

◦조사 일자:2001년 3월 21일
◦제보자:김병술

전에 한 사람이 인자 아주 부자 영감이 임금님이라 부자고 똑똑하고 그런 임금님인디 아주 이렇게 감나무가 뒤에가 섰는디. 아그들이 와서 감을 따니라고 우두룩 우두룩 감따고 그랑께 세상에 영감이 뒷문을 감딴께 인자 후두룩, 후두룩 소리가 난께는 이렇고 문을 연께는 감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애기가 죽어 부렀어. 그래서 인자 이 영감이 내가 그 때 문을 안 열었으면 내가 세령을 안치꺼인디 세령을 쳐 언젠가 내자석들 한티 죄를 받겄구나 하고는 그 영감이 그렇게 고민을 하다 죽음시러 그 유서를 겁나게 많이 써났어. 그래 먼 유서를 많이 써 놓고는 인자 묶어 나두고는 지그 아들이 먼 일을 저질러 갖고는 인자 사연하게 됐어. 사연하게 그 아들이 인자 지가부이는 죽고나서 사연한디 그 아들이 지가부이가 유서를 겁나게 써서 이런 동으로 딸달 몰아서 해나불고는 이 종우는 느그 몇대고 인자 느그 자석대고 한일이 급한 환경이 있어도 니가 죽을 단계에 이놈을 피놓고 봐라. 죽을 단계에 이놈을 놓고 피라 그랬어. 그래갖고는 인자 자기 아들대에는 갠찬했는디 손지가 인자 먼 큰 일이 생겼어. 그래서 죽게 생겼는디 죽은 환경이 돼았고 있는디 내가 이 죽을 자리에서 말 한자리 할란다고 그래서 인자 지그 한압씨가 준 그것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총살을 시킬라고 수건 씌어서 하고 있는디 이것만 내가 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그래서 인자 그것을 보고는 죽을 것을면했어. 그래서 인자 안죽였어. 임금님 손진디 자기가 죽일라 해서 죽인것도 아니고 감을 딴께 문연께 기냥 그것이 놀라갖고 떨어져서 죽었는디 이거이 이 죄를 손지가 받았는디 죽일 수가 없다 그라고는 안죽였당께. 문연께 감딴다고 문열어 본께는 떨어져서 지가 놀래서 죽었제. 그랬는디 그것을 한하고 유서를 서서 인자 그런 죄를 저질러 놨다고 그런 유서도 다 써서 봉창해 놨다가 내 자석대나 손짓대나 먼 급한 환경이 있어서 죽을 단계에 이것을 내나라 그랑께 내논께 아무리 그 영감이 살인것을 했어도 임금님 손지다 해가지고 무사히 했제.

묘자리 이야기

◦조사 일자:2001년 3월 21일
◦제보자:김병술

멧을 이렇게 판께 곁에 사람은 파랑새가 달아난다하고 그렇게 보이고, 먼디서 본께는 큰 함박꽃이 멧을 헐어서 판께 달아나비랬어. 그래 갖고는 그 집이가 싹망해버렸어. 그 멧이 짐이 한 번 나가벌믄 다시 그 자리다 씨도 못하고, 그 사람들 옛날 아조 김씨네 그 집이가 때없이 잘 살아갖고는 그 사람들이 그 집으로 밥먹으로 댕기고 그라다가 멧 파고는 망해 버랬어.(맹당을 파므는 짐이 나믄 얼른 짐을 덮어부려야 쓴다더만. 짐이 나오믄 그것을 덮어 버리믄 그대로 있어).

묘자리 이야기

◦조사 일자:2001년 3월 21일
◦제보자:김병술

풍수가 와갖고는 할아버지 멧을 옴길라고 그 풍수 보고 물어봤어. 이 자리는 애송 봉사는 됩니다. 딸은 분명히 되는데. 아들네는 안 좋습니다 그랑께 뭣이 안좋아야. 나노믄 눈봉사나 버버리가 됩니다. 그란디 재산을 말도 못하게 이 면으로는 일등 재산이 불어나겼습니다. 그랑께 아장 아장 걸어 다니는 놈이 먼 버버리가 돼야 했는디 아들 둘은 버버리가 되고 딸 5형제가 기가 멕히게 시집을 가갖고 잘 살고 그 집이가 아주 일류 갑부가 됐어.

그 집에가 애손 농사 된다드만 아들네 둘은 버버리가 되고, 딸 다섯은 기가 멕히게 잘살아.(멧이가 맹당을 만나믄 잘살게 하고 후손을 맹당이 아니믄 해꾸지만 쳐. 그랑께 첨에 봉기열믄 뜨건짐이 나온단다. 그라믄 그 때 막 막어부리야 된단다. 막어야만 좋게 사람 가만히 안둬. 그라믄 멋한 땅을 파믄 소도 일어난다 하고 말도 불끈 일어난다 하고 맹당을 파믄.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짐승이 무릎꿇고 나올라게. 일어스믄 부자가 되고 일어나기 전에 파믄 짐이 나가 불믄 안돼. 그랑게 맹당을 찾제.

지네에게 처녀를 바친 이야기

◦조사 일자:2001년 3월 21일
◦제보자:김병술

가이나를 그 동네서 처녀를 한나썩을 해년 해마다 지숙을 였어. 저그 어딘가에서 인자 이렇고 지네가 큰 집은 짓어 났는디 거기가 들어 갖고는 해년 해마다 지숙을 가이나 처녀를 였어. 처녀를 연디 한 번은 처녀를 연께는 인자 이것을 해년 해마다 해서는 안되겄다고 인자 뭣이 이 처녀를 집어만 여불머는 인자 이것을 가져간가 지키자고 그래 갖고 인자 지케본께는 인자 처녀를 잡어 였는디 처녀를 목욕하고 이쁘게 잠아 였는디 인자 문을 잠그고 그것을 지켜본께

큰 지네가 나와서 그놈을 감어갖고 생키고 그랫어. 그래갖고는 해년 해마다 처녀를 지숙을 였당께. 인자 다른 것으로 연 것 보듬도 처녀를 여므는 동네가 인자 아무 기탈없이 그라고 무사히 넘어가고 그랑께는 처녀를 집어 였는디 결국은 그 처녀를 기냥 이 지네를 어짤 수 없이 이래 놓고는 우리 처녀 좋은 처년디 그 처녀를 지네를 죽였어. 그래 죽여 나두고 본께는 크나큰 창고로 지네가 뻬드러져 분께는 지네가 한나가 됐다고.

도깨비 이야기

◦조사 일자:2001년 3월 22일
◦제보자:김영만

6·25 나고 작은집서 인자 작은아베네가 작은어메가 메느리를 얻는다 한디 옛날 우리 살림을 전부 갖다가 쓰드라여. 그라고는 내 옷을 전부 저구이 허리끈 노랑 모구리랑 그런 것을 동전만 뜯어불고는 지그 메느리 옷고름으로 다 해불고, 그 때는 미영배 이불이존 이불이라 한디 미영배 이불을 해서 나뒀는디 그놈 뜯어서 두루메기 하고 바지하고 얼마나 그때는 없이 산께. 그것을 해갖고. 장개간디 이불을 그것은 애기 이불이 아니고 우리 이불을 내 이불을 우리 어메네가 다 덮었은께는 동수네 처얻은지 애물 이불이라고 이불한나 해왔어. 그랑께 어디 갔다 오믄 그놈을 네 이불 하마 우리 어메가 마련은 해났는디 그 이불을 뜯어서 홈박 장개가고 내 옷도리 맹지 치매 저구리 같은 것도 지그가 다 목골리로 보내고 목운단 저고리 초록색 목운단 노랑 목운단 그런 것을 옴막 그렇게 지그 메느리 동정만 뜯어 주고는 다 달었는디 인자 결혼식 한다고 가갖고. 이것을 그랬네 저랬네 말을 못하제 내가. 인제 그렇고 다해서. 장개를 보내고 그러고 한디 어째 내 옷으로 했소 말었소 작은 아비 보고 천도 못허고 작은 어메 보고 나보고 묻도 않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어찌고 눈물이 나온디 눈물이 나온디 하여간 감당을 못해. 차말로 눈 찔끔 감으믄 움실하니 떨어지고 움실하니 떨어지고 장개 갔다가 이바지가 작것조차 멋조차 검나게 왔는디 내가 뒷날 각시를 안보고는. 시골이여 거기서 오기가 나산 나주인네 집으로 올라믄 시골이여. 나가 갈란다고 그랑께는 쳥일 지그 보기에 눈믈을 흘렸겄다 전부 우리 살림으로 다 살고 내것 갖고 그러고, 울엄메 울아부이는 없어졌는디 세상에 내것으로 이렇게 말도 없이 동상 사춘 동상을 여운 것이라 눈물을 흘리고는 인자 온디 시골인디 그 때 인자 해남 섬사람들이 나와서 산정서 소죽도 밑에 파장살이라 하므는 거그다 멧을 묻어 놓고 마부 그 알로도전부 무덤이 있어. 그란디 이런 씨발 것 동네로도 안돌고 막 가을인께는

이라고 막 논으로 직통으로 막 내려와. 직통으로 온디 저그서 막 불이 방울땡이 같아갖고. 나가 빨리 가믄 그 불도 빨리 오고 내가 또 천천히 가믄 그 불도 천천히 오고. 그래갖고는 이고 산정으로 내래가고 저건네 신영리로 가고 소죽도로 가고 인자 이렇게 인자 사거린디 거그까지는 딱 온디 불이 없어져 인자 불이 없어져. 나랑 인자 마주쳤는디. 저수지 등으로 이렇게 인자 내가 온디 그래서는 인자 금방 누가 오드라마는 혼자말로 금방 누가 오드라마는 누구까. 울아배 같으믄 지금 한창 울고 온 시간인께는 울아배 같으믄 나보고 말을 하꺼인디 울아베가 아니까 내가 인자 보통 이렇게 말을 했어. 울아베 같으믄 나보고 말을 허꺼인디 울아베가 아니까 누구까 그라고는 해고 앞에가 없어져. 소죽도로 올른디 내래다 본께는 돌아서서는 내래다 본께는 키가 꺼머이 건정해갖고 이라고 섰는거라. 아부지요. 아부지 같으믄 나보고 말잔하게 나보고 안하요 그랑께는 무선 것이 없지. 아부지요, 아부지 같으믄 나보고 말을 안하요 이로고 서서 보므는 이로고 키가 올라가. 아부지가 아닌께 말을 안한 거이다 그라고 인자 내가 올라 본께는 그 때 올를 때는 맘이 사르라니 나뻐 다시는 안돌아 봐. 이렇고 내래다 봄시러 돌아 본께는 이러고 올라가 키가 한정같이 꺼먼 그런 사람이 천장닿게 올라가. 내가 아부지가 아인거이다. 아부지 같으믄 말허거인디 안한거이다. 그라고 쥐인네가 간께는 왜 선비들이 와서 닭을 잡아서 죽써 먹고는 인자 상을 막 갖고 내데. 내드마는 옴메 동상웬일이요 어뜨게 이라고 오요. 내일이 결혼식 날인께 인자 간사람이 결혼식을 안보고 온께는 어짠 일이요 동상 어째 이라고 오요. 내맘이 불안한께 그냥 와비요 인자 그라고는. 그때 그헐게 또깨비를 여전히 내 눈으로 봤는디 키가 아주 녹사꾸라 이로고 쳐다 볼수록 올라가. 그란디 우리 아부지 같으머는 말을 하꺼인디 말을 안한께 아니다 그라고는 내가 올라가 비랬당께. 그리도 맘이 무선 마음이 없어.

저승에 다녀온 이야기

◦조사 일자: 2001년 3월 22일
◦제보자: 김영만

그렁께 인자 우리 아버지가 그게 몇살에 그랬냐 하믄 여든 여덟살 잡수셨을 때 저녁밥을 쇠고기 국에다 저녁법을 다 잡수고 그라고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래서 인자 내가 겁이 나니까 사방으로 전화를 하고 그래갖고 초상칠 준비를 했지. 그래 우리 아버지 입에다가 살을 좀 넣고 그렇게해서 했는데 아버지가 몇시간 후에 살아났냐 그라믄 한 여덜 시간 후에 도로 살아나셨어. 그래서 인자 뒷날

오후 두시 되니까 광주 있는 우리 학생들이 내랐드라고. 그래 우리 가운데 딸이 내랐는디 그때게 우리 가운데 딸이 고등학교 다닌 때여. 할아버지 나 알겄소 그랑께. 오냐 너 알겄다. 그라드라고. 그래 그때게는 의식이 온거야.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죽을 좀 쒔어. 죽을. 그라고 또 뒷날 아침에 죽을 잡수고. 그라고 나서 인자 내가 아버지하고 모시고 있을 때 장난을 좋아 했거든, 아버지 염두당이 있습디여 없습디여 그라고 물었어. 저승이 있드냐고. 그랑께 아버지 하는 말씀이 아주 무변대해더라고 허허벌판 무변대 해더라고. 그러드라고. 그래서 그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꿈이었다. 그런게 저승에 갈 때의 말하자믄 꿈꾼 것이기로 간 모양이여 죽을 때. 그래갖고는 꼭 1년 살으시다가 저녁 다 잡수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그래 인자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한테 생전 괴롭혀볼 일도 않고 그렇게 참 좋게 돌아가신 분이고. 우리 조부님은 아흔 다섯 살에 돌아가셨는디 그렇게 건강하셔. 그래가지고 그 조부님이 말씀이 머리도 이렇게 다 새로 났고, 검어졌고 이도 우아래가 다 났고 그렇게 인자 살아셨단 말이여. 그래 마당에서 인자 그때게 보리까실 할땐디 말이여. 마당에서 어떻게 해야 그라고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랬는디 우리 아버지네 내력이 대략 보믄 팔십을 넘겠거든. 인자 우리 형제간 아버니 형제간이. 그라고 우리 형제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6남맨디 다 시방 육십세가 넘었어. 그란디 다 이렇게 무사하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여 건강하게. 그랑께 혈통이 있는가 나는 생각을 해. 장수한 혈통 무슨 신체적인 구조가 건강하지 않느냐. 그라고 현재 내개 칠십인디 뭐냐 그라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픈디가 없어. 아픈디가 없고 감기같은 것을 아직까지 걸려보지 못했어.

지네 이야기

◦조사 일자:2001년 3월 25일
◦제보자:오명석

진해애가 산이 있는디 그 나라 군수가 거시기했어. 어찌게 동내가 지네 설 때문에 성가시게 한가 그 군수가 혈을 짤랐어. 혈을 짤러 놓고는 인자 자기가 영웅이라 딱 알것드라드만, 그래서 어디가 맘 의지할 때가 없는께 한 사람 보고 자기 여자 보고 작은 사람도 없어. 여자가 나는 인자 독아지 속으로 들어감시러 소둥께 큰 것을 안으로 꼭지를 해갖고 꼭지만 잡고 있어. 그란디 별 사람이 자기를 찾아도 몰른다 하라고 그랬는디 그렇게 사람이 자꾸 와도 몰른다 한께 인자 딱여자로 변해갖고는 애기를 하나 업고 왔드랑가. 그렁게 이 남자 애긴디 거시기 저 애기를 맡겨놓고 갈란다 한께 큰 사람이 그래서 큰 사람이

더 그렇게 이상한 갑디다. 그 참을 못참고는 저그 있다고 한께는 딱 허우대 벌리고 목가지를 꽉 물어갖고는 지네로 변해서 죽어볼드라여. 애기도 없어지고 여자도 없어지고 그래갖고 큰 사람 입이 여자들 입이 아주 나뻐. 그참을 못참어 참었으며는 그 남자도 살고 지네 설도 없어지고 할꺼인디. 지네 설은 그래서 잘랐드라해 그 때 옛날 일제 때 아주 조선 시대 때 영웅들이 많애 갖고 일본 사람이 여그 와갖고 혈을 많이 짤라부렀어, 그래갖고 영웅이 많이 없어졌제. 옛날 조선 사람 야문 사람이 없고, 일본 사람이 인자 우리 한국 영웅을 죽여 볼라고 일본으로 오라해갖고 소방에다가 아조 밤중이나 군방불 놓고는 아직에는 탔을 것이다. 그라고는 문열어 본께는 딱 얼음석에 방석 해갖고 얼어갖고 있어. 그렇게 하고, 영웅이 그렇게 많앴는디 그렇게 일본 사람이 혈을 많이 잘랐드래. 영웅이 없어졌다 그래 지금은. 우리 나라 어디만치는 생피가 아조 혈을 짤른게 사람 피같이 팍 나와갖고 지금도 거가 여전히 있다고 전설에.

점 쟁 이

◦조사 일자: 2001년 3워 25일
◦제보자: 오명석

옛날에 우리는 아그들이 하도 아퍼싼께는 시리를 시리가 별라도 좋아라우. 좋고 이쁘고 미끈하니 머리에다 이므니 또가리 안에다 안넬칠 정도로 좋은 시리를 큰집서 하나 줍디다. 인자 떡을 딱 해났는디 점쟁이가 와서 그 제 멋인가 한다고 와이사스 깨끗한 것으로 한다고 와이사스로 큼직한 또가리를 하나 해서 였어. 이라한께. 시리 큰 것을 이상커 그 시리가. 아거 딱 이고 있은께는 나한테 아조 뭐라고 뭐라고 한께 그 시리가 인자 진짜 머리에서 빙하니 돌데. 틀림없이 돌아. 나도 절대로 미신은 안지케. 그란께는 아 슬슬슬슬 내로네. 고개를 이로코 해도 늘 내라. 점쟁이가 얼른 아이고 시리 깨진다고 낼치기 전에 받으란디 영낙없이 내라라우. 설설설설 내라라우. 그래서 인자 참 이상하드라고 시리를 이고 있은께 그렇게 빙하니 돌고. 내 정신은 총총한디 빙하니 돌아. 그 큰 시리가 빙하니 돌드라니까.

점 쟁 이

◦조사 일자: 2001년 3월 25일
◦제보자: 오명석

작두를 작두탄다 하드만, 굿을 한디 일주일 굿을 해. 열두 가문 굿을 하드만. 나 애기때여. 나는 딴거 신기한 것. 작두를 이런 큰 멧돌에다가 콩을 한말이나 펴놓고 큰 물통을 넓적한 놈을 놓고 그 우게다가 작두를 올려 놓고는. 칼날을 바싹 갈아. 이

쪽 갈고 다 갈았는데 세워 놓고 그 우게 올라타. 그래갖고는 물이 한나 있는 동우에서 빙빙 돌아. 나 그거 봤어. 분명히 나는 봤어.

여자 입방아

◦조사 일자:2001년 3월 25일
◦제보자:오명석

한 사람은 아부지가 멧을 잘 봤어. 멧자리를 잘 봤는디 인자 이라고 놈의 묘자리는 그렇게 잘봐도 자기 멧자리는 안 봐 놓고 인자 아픈거라 다 죽어 갈라 한거라. 그랑게 아들이 아부지 놈의 자리는 본디 어째 아부지 자리는 안 봐주요. 아부지 어디다 묻으면 좋겠습니까 그라고 묻은께 엄마 또마라. 정재가 놈이 있다. 엄메배끼 없는디 놈이 들었어. 저 샛문에서 아부지 하고 아들하고 한 소리를 엄메가 들었어 정재서. 그랑께 인자 들었는디. 나는 죽으머는 빈 생애만 갔다가 아무데다 아무산에다 묻어주고, 나는 이 아래 저수지에다 빠쳐주라. 그래서 인자 그랬어. 동내 저수지에다. 그랑께는 죽어갖고 인자 이 어른은 저수지에다가 지그 아부지간 빈 몸으로 들쳐 주라고 했어. 그랑께는 아들이 업고 가서 저수지에다 들치고 인자 빈 생애만 빈각만 해가지고 인자 산에다 묻었는디 동네에서 유식하고 똑똑한 남자들은 죽고 다 죽고 그 집은 막 잘돼 나간거라. 아조 그 집은 소가 불바도 안깨질 정도로 잘돼 나간거라. 그 여자가 들어갖고 참었으믄 할꺼인디 우리는 우리 영감이 나 죽으믄 이 아래 저수지에다 들치다 하고 삼년만 아무데나 묻으라 하드마는 이로고 영감 갖다 묻음시러 놈보고 말해 부렸네. 그랑께 동네에서는 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은 죽어 싼디다가 막 동네서 그 소리 듣고 팠어 물을. 동네에서 저수지 물을 푸고, 푸고 해나두고 본께 말이 배갖고 꼴랑지 넙덩치는 이라고 다리딱 일어서고 앞에만 굽은 구부리고 있는 거라. 그 굽은 이렇게 서불머는 지그 살림은 아무렇게 디낄라 해도 못디기고 그렇게 잘 인자 돼꺼인디 그 참을 못 참아서 여자 입이 놈이고 방정 맞아갖고 기냥 인자 동네사람이 가서 물퍼 놓고는 말이 배갖고 송장이 말이 배갖고 그라고 한께는 막 뚜드러서 깨서 없애부렀제. 그랑께 여자는 이 입이 못써.

도깨비 불

◦조사 일자:2001년 3월 25일
◦제보자:오명석

도깨비라는 건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하나의 것이기는 말하자믄 인불은 봤지. 인불은 본 것은 어떻게 인불을 봤냐 그라머는 우리가 참 성질이 묘한 사람이거든. 무설안에 현재도 암껐도 무설안해 부러. 그런디 그때게

비가 이슬비가 부슬부슬 왔는디. 구목리 살땐디 동쪽으로 이렇게 질갈가에가 판자가 붙어졌드라고. 그런디 그때게 비가 이슬비가 줄줄줄 온디 여그서 탁 점화가 되므는 빠작 하므는 모과나무 그것이 전부가 불덩이가 되드라고. 인자 밤인디. 불덩어리가 되니까 고것이 빠작하믄 불덩어리가 되고 쪼금있다 파딱파딱 들어주고. 다시 한 번 파딱파딱 커지고 그래갖고 훤허이 다 꺼졌다 이렇게 하드라고. 그래서 그것을 인자 나는 인불이라고 봐서 옛날에 말허믄 도깨비불이라고 한 것이 그거이 내가 입증을 분명히 했지. 비가 오믄 도깨비가 나와갖고 어쨌니 저랬니 했싼디 이 근래는 그런 것이 없고. 옛날에 전설이나 불과하다고 생각해. 그라고 사람은 겁을 집어 먹으머는 무서운 것이 생기잖아. 그라고 옛날에는 귀신이란 것을 무섭게 생각했다고 그래. 귀신이란 다 그라고, 그렇고 생각을 하고, 그라머는 사람이 정신이 나갈 때는 분명히 느닷없는 놈이 보이잖아. 그래서 그거이 허깨비지. 언능 말해서.